트럼프, 김정은에 집요하게 '러브콜'…"만나면 정말 좋을 것"

회동 성사시 순방일정 연장 의향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 유지"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방한 기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AP·AFP·교도통신 등 외신과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김정은)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만나고 싶다"며 "그가 만나고 싶어 하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아시아 순방 일정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I'll be in South Korea, so I can be right over there)"며 일정을 늘릴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일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것(일정 연장)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쪽으로'(over there)는 김 위원장이 있는 곳 또는 그와 회동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킨 것으로, 판문점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정은과의 회동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북한에 발을 들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여러 차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김 위원장을 만나면 대북 제재에 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거래를 유도할 유인책이 있냐고 재차 질문하자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김 위원장)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키피디아 좌편향됐다면서…
머스크, 대항마 그로키피디아 출시

AI모델 그록 활용한 온라인 백과사전

일론 머스크가 오픈소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대항마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백과사전을 27일(현지시간) 출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AI 기업 xAI의 AI모델 '그록'을 활용한 백과사전 '그로키피디아 v0.1'을 공개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위키피디아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위키피디아가 자신의 우파적인 견해와 충돌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불만이었다.

지난 2023년에는 "(위키피디아의) 이름을 '디키피디아'(Dickipedia)로 바꾸면 그들에게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를 주겠다"며 "정확성을 위해"라고 비꼬기도 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그로키피디아는 위키피디아의 스타일을 많이 따랐지만, 일부 설명에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일례로 '젠더'(성)에 대해 그로키피디아는 "생물학적 성(sex)을 기준으로 인간을 남성 또는 여성의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위키피디아는 "젠더는 남성(또는 소년), 여성(또는 소녀), 또는 제3의 성으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행동적 측면의 범위다"라고 정의한다.

그로키피디아의 일부 설명에선 과장이나 오류도 드러났다. 특히 머스크에 대한 설명에서 그로키피디아는 그의 AI 개발이 "진실 지향적인 개발을 통한 AI의 안전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위키피디아의 '대안'을 표방하지만, 정보량이나 성능이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로키피디아는 약 88만5천여 건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영어판 위키피디아의 800만여 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中, 지난달 서해 구조물 주변서 韓조사선 막아…한중 또 대치"

美CSIS "中, 통제권 강화 존재감 과시"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선박과 이를 막아선 중국 해경 간에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의 잇따른 서해 구조물 설치로 양측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혔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이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됐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접근해왔다.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쌌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고, 두 선박이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췄다. 양국 선박들은 가장 가까울 때는 3㎞(1.7 해리)까지 근접했다.

CSIS는 "이번 사건은 2025년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SIS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양국 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진 않지만,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그레이존'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세계 최고령 92세 카메룬 대통령 8선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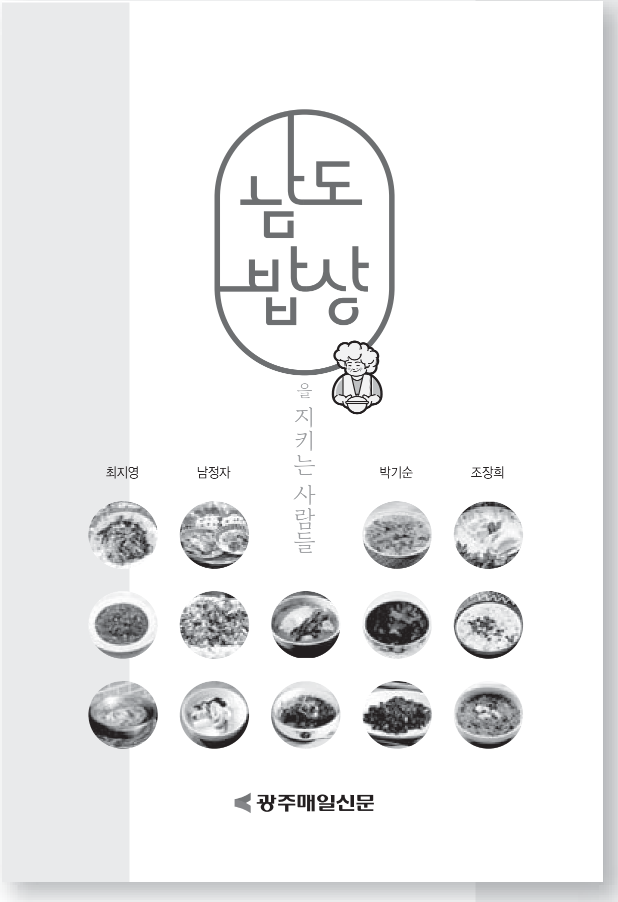
세계 최고령 국가 원수인 폴 비야(92) 카메룬 대통령이 8선에 성공했다.

카메룬 헌법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비야 대통령이 지난 12일 치른 대선의 공식 개표 결과 53.66%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대선 이후 자신의 승리를 주장해 온 야당 카메룬국가구원전선(FNSC)의 이사 치로마 바카리(79) 후보는 35.19%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43년간 장기 집권한 비야 대통령이 또 다른 7년 임기를 더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99세가 될 때까지 카메룬을 통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 : 예금주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